

내가 걸어온 학문의 길

李 鍾 珏

나는 현대의 문명생활과는 거리가 먼 농촌에서 성장했다. 우리 마을에는 전기불(전등)도 들어오지 않았으며, 자전거나 벽걸이 시계도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내가 보통학교(국민학교)에 들어가면서 나는 공주읍내에서 살게 되었는데, 읍내에는 자동차, 유성기 가게, 시계포 등이 있었으며, 그 당시에는 아주 드문 일이지만 학교에는 피아노도 있었다.

나는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고등보통학교(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수학이나 물리화학을 배우면서, 이것에 흥미를 느껴 열심히 공부하였으며, 앞으로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여 과학자가 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리고 1942년 봄에 마침내 이 꿈이 이루어져 동경에 건너가 공과대학 예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대학예과에서는 3년동안 수학, 물리화학, 생물학, 영어, 독불어 등의 외국어를 주고 가르치기 때문에 공학에 대한 확실한 갈피를 잡을 수 없었으며, 그저 막연하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8.15해방 전해 가을 학기에 학부 전기공학과에 진학하여 본격적인 전기공학 공부를 하게 되었다.

학부 1학년 때의 주요 과목은 전자기, 교류이론, 전자계측, 과도현상, 기계공학, 열역학, 수리학, 재료역학 등이었는데, 갑자기 학문분야가 넓어지고, 강의 내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전기공학과에는 전력공학과 통신공학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각자의 취미에 따라 전력, 통신 중 하나를 전공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시 전자공학과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나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하기 직전인 1945년 여름에 날로 가중되는 미군기의 폭격과 패망에 따른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박해를 두려워하는 공포 속에 구사일생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1949년 경성대학 이공학부에 편입되어 나머지 공부를 계

속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전기통신에 관한 공부는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해방 후의 국내 혼란과 국대안 반대 등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하지도 못한 채 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러나 당시 무선 통신은 진공관에 의한 아나로그통신이나 방송이 전부이었으므로, 공부하기가 매우 쉬웠으며,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낭만적인 면이 있었다.

나는 대학 졸업 후 잠시 체신부에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으므로, 이런 의미에서는 평생동안 학문의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도 있으나 끝내 연구다운 연구를 하지 못하고 교단을 떠난 것이 아쉽기만 하다. 나는 날로 발전하는 전자공학의 신분야에 그때그때 적응하지 못하고, 뒤따라 가는데 급급하였으며, 제대로 학생들을 가르치지도 못하였다. 1960년대에 트랜지스터가 등장하였을 때, 나는 일종의 공포감마저 느꼈으며, 이에 적응하는데 남달리 고생을 많이 하였다. 아마 이러한 것은 나의 천성과도 깊은 관계가 있으며, 시골 태생의 기민성 부족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도 전자공학은 설 사이 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지금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겪었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따라가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여기서 보잘 것 없는 나의 학문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고, 내가 과거에 교수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몇가지를, 혹시 우리 전자공학회 회원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피력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1. 좋은 책의 선택

같은 분야의 학문이라 할지라도 교재의 선택에 따

라 학습의 효율이 매우 달라진다. 나는 전자회로를 거의 독학하다시피 하였다. 처음에 라이히(Reich)의 책으로 공부하였는데, 이 책은 내용이 충실하고 치밀한 좋은 책임에는 틀림없으나 설명방법이 까다롭고 요령이 부족하여 이해하는데 힘이 들고 학습효과가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라이더(Ryder)의 책을 접하니, 내용은 다소 치밀하지 못하였으나, 설명이 매우 알기 쉽고 요령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효과를 거의 10배 가까이 높일 수가 있었다. 나는 전자회로 뿐 아니라 회로이론, 전자장, 전자기계 등 여러 분야에서 같은 경험을 했다. 그러므로 나는 학문을 하는데 책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좋은 책 만나기가 좋은 스승 만나기 만큼이나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는 요사이 한가한 시간이 많아서, 소설이나 수필과 같은 문학서적을 많이 보는데, 문학분야에서는 좋은 책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그리고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지만, 아무 책이나 양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읽어서 해가 되는 책이 서점가에 범람하고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폭넓은 인재 양성

공과대학은 말할 것도 없이 지도적인 고급기술자를 양성하는 곳이다. 그런데 공과대학 졸업생은 자칫하면 편협한 인간이 되기 쉬우며 사회에 나가서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 관청에 가서 국장 이상의 지위에 오르지 못하며, 회사에 가서 경영자가 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성이 편협하고 융통성이 없으며 시야가 좁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리 기술자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으면, 크게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항상 학생과 더불어 인격도야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근래 항간에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다는 말이 떠도는 것도 이런 것에 연유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나 스스로도 반성한다.

기술을 공부하는 것이 곧 인격형성의 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술자는 고도의 학문이론을 학습하여 얻은 기술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고 인류문명의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다. 그러나 기술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에 만족하지 말고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인 뒤에는 큰 기업의 경영자나 기술행


정의 최고위직에 오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공과대학의 교육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기술교육에서 오는 편협성을 극복하고 폭넓은 식견을 가질 수 있는 소지를 기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한글의 간소화

나는 평소에 쉽고도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한글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는 정식으로 한글 공부를 하지 못한 탓인지 모르지만, 한글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진다. 내 생각으로는 한글의 쓰기 공부는 중학교 2학년 정도에서 끝나쳐야 한다. 이 바쁜 세상에 문자 공부에 시간을 낭비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글 학자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맞춤법에 관한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형편이며, 새로운 맞춤법이 가끔 나오고 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글을 쓰는데 띄어쓰기가 무엇이 그리 중요하며, 외국어를 어떻게 정확하게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단 말인가. 전자공학을 공부하는 내가 한글 쓰기에 관하여 이와 같이 불평하는 이유를 여러분도 대략 짐작할 것으로 생각된다. Transistor를 한글로 표기 하는데, 트란지스타, 트랜지스타, 트란지스터, 트랜지스터 중 어떤 것이 맞는지 나는 아직 잘 모른다. Digital의 한글 표기도 디지털, 디지탈, 디지틀 등의 논쟁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예는 이 이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리고 또 우리 말의 로마자 표기에서도 얼마나 큰 혼란이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따지기를 좋아하며, 타협하는 이량이 모자라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한글 표기법은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문제이다. 그래서 잠꼬대 같은 소리가 될지도 모르지만, 나는 감히 다음과 같은 제안을 참고적으로 하면서 끝을 맺을까 한다.

1. 띄어 쓰기는 권장 사항으로 하고 규칙을 더욱 간소화한다.
2. 외래어의 한글표기법이나 한글의 로마자표기법의 규칙도 더욱 간소화하고, 권장사항으로 한다.
3. 외래어 학술용어의 한글표기는 각 해당 학회에 일임한다.
4. 한글표기법을 정할 때, 한글학자 단독으로 하지 말고 과학자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시킨다.
5. 한글학회에서는 표준한글 사전을 편집하여 적어도 30년간은 개정하지 않는다. 

筆者紹介



李鍾堯

1922年 4月 4日生

1948年 8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통신과(구 3년제학부) 졸업

1972年 2月 서울대학교(공학박사)

1950年 1月~1954年 5月 공주사범대학 조교수

1957年 4月~1961年 3月 인하공과대학 교수

1961年 4月~1987年 8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1973年 1月~1976年 12月 대한전자공학회 부회장

1977年 1月~1978年 12月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주관심분야 : 회로이론, 신호처리